사 설

불자다운 남·북 교류 기대

남한과 북한의 불교계 대표자 회담이 지난 5월24일 뻬이징의 랜드마크호텔에서 있었다. 남북한 불교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한 민족의 통일에 기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장차 민족의 항구적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모임이었다.

이번의 모임에서 양측의 대표자들은 통일에 관한 각자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하였으며, 남북한 불교계의 효과적인 교류방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발표했다.

양측이 논의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불교계의 지도자들을 7~8월경에 북한에 초청한다. 둘째 조계종 총무원장인 월주스님을 관문점을 경유하여 초청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광복 50주년 조국평화통일기원법회를 공동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남한 불교계에서 제시한 북한의 불교병원 건립, 북한 소재 불교유적지의 복원불사 지원, 남북한 불교계의 만남을 매년 4월 초파일로 정례화, 8·15이후 로스앤젤레스에서 남북한 해외 불교지도자의 연석회의 개최 등은 양측이 왕래하면서 점차 개선하기로 한다.

이상의 사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 접근은 몇가지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양측의 최고 지도자들이 방북을 합의한 것은 남북 불교교류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방북때 해외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판문점을 통한 육로를 이용하기로 한 것은 분단의 벽을 낮추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이 분단된지 반세기나 흘렀다. 1세대 이상 문화적 단절감 속에 분단민족의 설움을 겪어왔다.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적극적인 평화통일 노력이나 문화적 단절감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부족했다. 체제수호의 논리나 이념적 주의 주장을 고수하기에 바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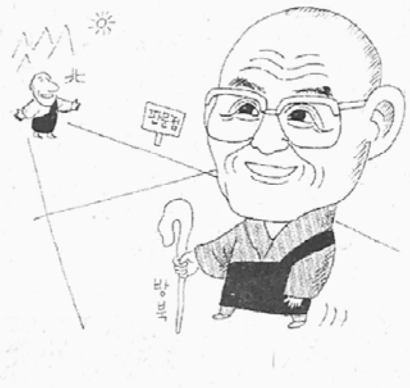
이제 동서의 이념적 갈등이 무너져 버렸다.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기 보다는 상대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상호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남아 있는 지구상의 갈등 요인이라면 민족과 종교적 문제로 국한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북한의 불교계 지도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상호방문의 길을 열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지극히 뜻깊은 일임에 틀림없다. 이제 문제의 실마리를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고 본다.

남북 불교계의 회담 장소도 평양과 서울로 국한 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금강산의 어느 사찰이나 묘향산의 어느 사찰 혹 남한의 어느 사찰에서 돌아가며 만나고 법회를 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치적 시각보다는 양 불교도들의 원형적 정서를 통합시키고, 단절된 민족 공동체의식을 앙양할 수 있도록 작은 일부터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녕 부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 일체의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발해야 하리라 본다.

현 대 만 평 박구원



큰 길로…

열 린 마 당

불교환경운동

6월5일은 제23회 환경의 날. 불교계 환경운동의 현황을 점검해 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본다.

'우리는 파수꾼' 진각종·교육원·공추불 등 활동

'심청정 국토청정' '실유불성'. 불교의 가르침은 그대로 환경운동의 지침서이다. 교계는 80년대 후반부터 환경운동이 곧 붓다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보살행임을 인식해 본격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불교계에서 가장 먼저 환경운동의 기치를 내걸고 나선 단체로, 88년 3월 창립이후 생태·환경교육 강좌인 생태학교와 생활양식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키 위한 '생태주의 이념과 경향' 세미나 등을 열어왔다. 특히 10기까지 개설된 생태학교는 150여명의 수료생들이 실천모임인 '초록바람'을 결성해 생태주의운동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오는 6월 3,4일 불교계 25개 단체가 참여하는 '청정국토 한마당'을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교계의 대표적인 환경단체로 꼽힌다. 자료집〈동양사상과 환경문제〉를 펴내기도 했다.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 92년 2월 부처님의 공존공생의 연기사상에 입각하여 공해를 추방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시민운등전개를 취지로 창립했다.

'불교사상과 환경보존' 주제의 환경세미나, 금연침시술 등 순수불교시민운동을 벌여왔다. 계간지 〈공해없는 세상〉을 5호까지 발행해 문서를 통한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다.

청정국토가꾸기운동본부 진각종이 종단차원에서 전개하는 이 운동은 '淸心淨土'를 모토로 환경정화사업, 생명존중사업, 세상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자는 지은보은(知恩報恩)사업의 3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심인당에 대형 분리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 환경강좌를 개설해 매주 목요일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봄·가을 3개월 과정으로 개최하며, '불교와 환경문제'를 비롯 8개 강좌를 진행한다.

경불련 환경모임 지난 3월 발족하며 장바구니 1천개를 무료 배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주부환경모임은 이후 무공해비누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지키자 폐품 재활용·물물교환 등 앞장

교환하고 재활용하자 가구 의류 등 쓰지 않는 물건을 신도들끼리 교환할 수 있도록 하자. 사찰에 물물교환 알뜰가게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환경법회를 열자 정기적으로 환경법회·강좌를 열어 사찰이 환경교육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자.

유행의 허울을 벗자 현대는 유행의 시대라 할만큼 의류는 물론 가전제품 자동차에까지 유행을 좇는 실정이다. 자기만의 개성있는 생활설계가 더욱 빛나는 아름다움이 아닐까.

과대포장상품 안사기 포장은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겉모양의 화려함보다 실속을 중시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요구된다.

절전제품 사용 전자제품 구입시 전력사용량표시를 확인해 절전형 제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자.

내 물건처럼 아끼자 사무용품 또는 공공시설물 사용시 자신이 직접 비용을 대지 않았으니 마구 써도 된다고 생각을 버리자.

환경행사 열기 사찰을 비롯한 불교단체에서 환경관련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어 환경보호 인식의 확산과 실천운동을 펼쳐나가자.

환경파괴회사 제품 안사기 환경을 파괴하며 이윤창출에만 몰두하는 기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많이 걷기, 자동차이용 자제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이 대기오염의 주원인이다. 자전거 타기는 좋은 대안이다.

청정국토 10선계 지키기 탐진치 제거, 쓰레기 분리수거, 천연세제 사용, 음식물 안남기기, 일회용품 사용않기, 장바구니 사용, 금연 금주, 자비 실천, 생명존중, 근검절약의 생활화.

'청정국토 한마당' 행사 내용

'생명을 푸르게 마음을 자비롭게'를 주제로 한 청정국토 한마당이 6월 3,4일 이틀동안 조계사와 인근 수송공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계 20여 참가단체가 각 행사를 주관한다.

6월 행사명		일시	내용·주관단체
청정국토 기념법회		3일 오후3시	환경실천 서약서 작성
문화행사	환경영화상영	4일	한국불교문화원
	어린이를 위한 연극공연	〃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환경노래부르기	〃	대불청 서울지구
	환경비디오 상영		조계사 청년회·중고등학생회
	생명나무 만들기	3,4일	공동행사
	만화가 사인회	4일	만화가 신영식씨 초청. 조계사 어린이회
	불자가수 초청공연	3일 오후5시	공동행사
전시행사	생태기행사진전	3,4일	두레생태기행
	자연환경사진전	〃	초록바람
	유기농사진전	〃	초록바람
	매립쓰레기사진전	〃	초록바람
	환경도서전	〃	조계사 청년회
교환·판매	무공해비누 무료제공	〃	두레생태기행
	무농약농산물,	〃	석왕사 생협
	환경상품 전시 및 판매		
	우유곽·화장지 교환	〃	석왕사 생협
	전통음식 먹거리 판매	〃	불교어머니회
캠페인	환경가두캠페인	3일 오후4시	공추불
	장바구니 나눠주기	4일	경불련 환경모임
	헌옷 기워주기	〃	경불련 환경모임
	맑고향기롭게 스티커 배부	〃	맑고향기롭게 운동본부
	환경가훈 써주기	〃	자비의 전화
학술기타	'국립공원보전' 심포지엄	8일 오후2시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불자환경설문조사	3,4일	한국불교문화원

특별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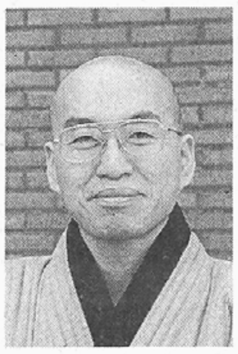
'원상 복구' 아닌 생명운동

많은 사람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자연을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질과 대기를 보존하고, 파괴하지 않는 실천운동을 벌이며, 저항과 반대를 통해 파괴를 방지한다는 운동으로 한정시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이 과연 그 정도의 내용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공해라는 말로서 처음에 유포되었다. 이것은 이미 그 언어속에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다. 부도덕한 기업주와 정권, 그리고 제국주의적 선진국의 기업들이 그들인 것이다. 그러나 92년 브라질 리우에서의 환경회의 이후로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공해라는 제한된 개념을 뛰어넘을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환경이라는 말이 보편화된 듯하다.

사람이 환경파괴 주범

그러나 애석하게도 환경이라는 말 또한 현재의 위기적 징후를 설명하는 용어로서는 역시 적당하지 않다. 환경문제의 진정한 내용은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며 원상복구하자는 관리주의운동(이것은 개량주의 운동이다)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환경을 파괴한 사람의 문제, 가치관과 세계관, 정치 사회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잠시 좋아졌다고 해도 머지 않은 장래에 다시 파괴될 것이다.



법 륜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원장〉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역사는 내발적인 자기발전에 의해 성장해 왔다기 보다는, 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국제화된 위기의식으로 각종 환경적 무역규제와 정치적 압력이 세계화되면서 우리나라안에서 환경적 의식이 고양된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환경운동에 관한 다양한 논의나 철학적사고는 빈약한데 반하여 대부분의 환경운동이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운동, 수질과 대기오염을 반대하고, 개발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운동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저항운동과 '…을 하자'는 창조적 대안운동이 동시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환경운동이 바라는 대안적 사회는 무엇이냐' '환경적 삶이 무엇이냐' '환경운동의 마지막은 어떤 것이냐'하는 질문에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

과거의 사회운동은 현실적 여건보다 이념적 당위에 매몰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환경운동은 현실의 과잉, 이념의 빈곤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천이 중요하지 관념적인 이야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제발 끝나야 한다. 그동안 생활속의 실천방법이나 수칙들은 TV나 라디오, 신문과 각종 기업의 홍보물속에 이미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너무 진력이 나게 이와 같은 실천이 환경의 전부인양 보도되고 알려졌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미 소비할 것 다한 뒤에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쓴다는 자원재활용 운동은 '파이프 끝 전략(End of pipe)'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자원재활용 운동은 쓰레기가 나올 상품을 아예 처음부터 구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사람들 개개인에게 어려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자기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곧 수행이 절실히 필요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자원소모적인 상품은 아예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산업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이다. 자원재활용운동은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비롯하여 결국 개인의 생활양식,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운동이며 개인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운동인 것이다.

환경문제는 자연환경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정신문제이며, 문명의 문제, 경제와 정치, 모든 가치관, 생활양식, 총체적인 모든 문제이다. 그래서 그것을 운동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생명운동'이라는 용어이다.

서로가 서로를 살려야

생명이라는 것은 물질의 결합과 정보의 결합에 의해 내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결합의 하나하나가 생명인 것이다. 자연의 모든 생물이 나의 구성요소이며 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존재의 토대인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생명관이며 일체의 생명관이다.

환경문제는 인간이 인간을 향해, 인간이 자연에 대해 죽이는 모든 시스템을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사회, 인간이 자연을 살리는 체제로 만들자는 살림운동인 것이다. 그래서 생명존중의 전통과 사상, 불교의 수행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봉 (불기 2539年)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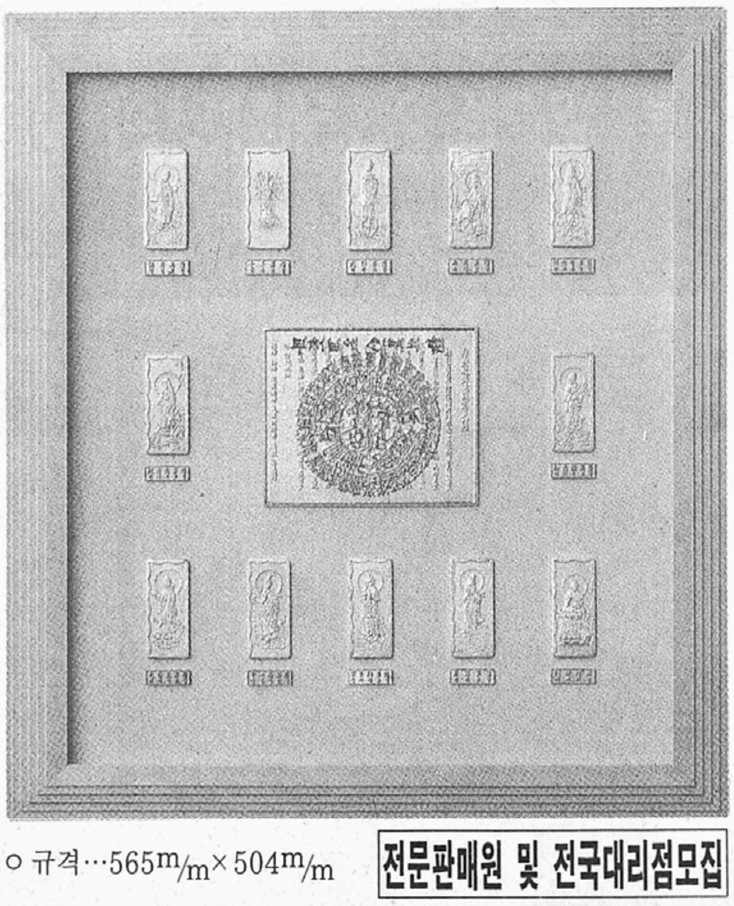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부귀장수 소원성취를 누리십시오.

「부처님에 신비한 힘」

한국불교의 12보살님의 모든 것을
예술성 높은 장식기념물로 만들었습니다.

滿月菩薩(만월보살) 千手菩薩(천수보살)
大輪菩薩(대륜보살) 水月菩薩(수월보살)
觀世音菩薩(관세음보살) 觀自在菩薩(관자재보살)
如意輪菩薩(여의륜보살) 大勢至菩薩(대세지보살)
十一面菩薩(십일면보살) 軍茶利菩薩(군다리보살)
正趣菩薩(정취보살) 阿彌陀菩薩(아미타불)

- 1995年은 불기 2539年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12보살 소장품을 1995 세트만 한정 판매합니다.
- 직사각안의 글씨는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이고 원형그림은 소원성취 만사대길이라하는데, 즉 이 뜻은 부부화합, 자손번창, 사업대성, 건강 등 인간만사 모든 방면에 있어 길복을 초래하고 재앙이 침범하지 않기를 원하는 뜻입니다.
-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12보살을 제작한 목적은 한국불교의 역사를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하고자 만든것입니다.
- 부처님의 신비의 힘은 12보살을 형상화한 보살 시리즈로 역사적인 명기념품이 될 것입니다.



○ 규격…$565^{m}/_{m} \times 504^{m}/_{m}$

전문판매원 및 전국대리점모집

"12보살님의 은공으로
당신의 모든일이
만사대길 하시길 바랍니다."

- 12보살은 24K금도금으로 제작하였기에, 한국 고미술의 섬세한 터치가 엿보이는 금속예술의 독특한 멋과 미를 한층 더 높일수 있는 값진 선물로도 훌륭합니다.
- 특히, 12보살의 독특한 개성이 엿보이는 예술성을 장식용으로도 최고의 멋과 품위를 한층 더해드리며, 놀라운 소장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역사적으로 희귀한 이 작품을 보증서와 함께 소장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귀하신분께 값진 선물이 될것입니다.
장인정신으로 최선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가 격: ₩ 330,000-.
은행신용카드 할부가맹점
국민카드 비씨카드 비자카드 LG카드

미래 선물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번지 코엑스전시장3층 3A-23호
TEL : (02) 551-3654~5
전화 : (02) 551-1314~5